

● 국회의원씨리즈 ②

권택기 의원의 꿈, 약속, 실천

서울 광진갑 권택기 의원(별장 공과 37세, 한나라당, 대중원 권경중부총재의 장남)은 지난 9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어린이회관 문화관에서 저서 '권택기의 꿈, 약속, 실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문화관에는 1시간 전부터 정치인, 지역 주민, 안동권씨 족친 등이 문전성시를 이루더니 강당을 가득 메우고 출입구까지 늘어서 약 1,500여 명이 넘는 듯 했으며 정계 의원들의 빛나는 추사가 이어졌다.



이날 출판기념회를 빛내주기 위해 박희태 국회의장, 이윤성 전 국회의장, 이재오 특임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원희룡,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추미애 민주당 국회의원 등 전원직 30여 명과 손병두 KBS 이사장 등 정계 인사와 오문에서는 권경달 총재, 권오을 국회의원총장, 권영신, 권봉도 부총재, 권재주 안동화수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출판기념회를 빛내주기 위해 박희태 국회의장, 이윤성 전 국회의장, 이재오 특임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원희룡,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추미애 민주당 국회의원 등 전원직 30여 명과 손병두 KBS 이사장 등 정계 인사와 오문에서는 권경달 총재, 권오을 국회의원총장, 권영신, 권봉도 부총재, 권재주 안동화수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2. 권택기 의원의 약속

권택기 의원의 대화와 타협 국립 서울대병원 재건축에 있어 보건복지부가 지역주민과 대화를 한 적이 없고 설득을 시키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려 하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었다. 대화와 타협, 설득과 조정하려는 내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은 언론에 남북국회 의원이라 기사가 실렸다. 결과적

공원에 직접 체험 테마파크를 끼워 넣었더니 효과가 좋았다. 아이들도 깔고 댕구면 보석이 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아이들을 끌어안아야 한다.

서민을 빛으로부터 구하는 뉴스타 생활안정자금 일반 서민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고리채를 이용한다. 서민을 울리는 고리대부업체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가 경제 활동인구 3,700만명 중 21.7%인 8백여만명에 달한다. 서민들은 년 72.2%의 고리에 허덕이고 있다. 이 정부는 생활안정을 위해 미소금융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자격요건이 높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택기 의원이 제안하는 것이 가칭 뉴스타생활안정자금제도이다. 저신용층에게 상호금융이 15%의 대출을 해주고 공적기관이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이다.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되풀이 되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서민의 어려움을 방치한 채로 장밋빛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3. 성실한 젊은 일꾼의 실천

갈등공화국 우리사회는 갈등관리를 해야 할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2조원의 예산이 날아간 천성산 터널공사, 서울의곽순환고속도로, 방죽, 용산사태, 세종시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갈등관리 전문가의 매뉴얼을 만들지 않으면 정부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현 갈등조정 위원회는 기본법이 없어 구속력이 없으며, 중앙부처의 컨트롤 타워가 없고, 공무원들은 지역주민과 갈등관리보다 무조건 추진한다는 발상, 주민들의 대화창구가 없는 점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갈등관리 기본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전문가들과 검토 후 기본법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공공정책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해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와 협의체구성, 법적근거 마련하고 정책 결정 전에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서민을 위한 햇살론 우리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화됨으로 사회 안전망인 복지형금융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말한 채권을 정부가 보증해주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리스크가 줄어들어 대출이자를 낮출 수 있다. 택기 의원은 주택신용보증기금 5천억원과 신용회복위원회 5천억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소금융, 창업지원도 좋지만 더 절실한 것은 생계비이다. 실직자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뉴스타생활안정자금제도'라고 주장한다. 연간 1,500억원이면 서민 30만명에게 500만원 대출을 해줄 수 있으며 저소득층이나 실직자들이 더 이상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신용불량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는 길이라고 그의 저서에서 곱파하였다.

(편집인 권경석)



어린이회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정계인사와 지역 주민들(왼쪽 좌: 박희태 국회의장, 우: 주민들에게 큰절하는 권택기 의원 부부)

이그 저와 함께 살고 있는 광진갑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광진갑을 만들기다 다짐하며 출판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권택기 의원은 이명박대통령의 정무기획장관 출신으로 서민 금융정책인 '햇살론'을 만들고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서민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온 결과 2년 연속 NGO모니터단 우수의원, 매니페스트 약속대상 우수상, 현정대상우수상을 타는 등 초선의원답지 않게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필자는 2시간 이상 진행되는 행사를 지켜보며 권택기 의원의 정치철학이 부끄러웠고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왔는가를 살펴보고자

1. 권택기 의원의 꿈

택기 의원의 정치정체(政者正也) 그의 저술에서 정자정야(政者正也)를 정치철학으로 삼고 있는 듯 하다. 논어의 안연편에 공자가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다."라 답하였다 한다. 이면에는 "자술이정(子術以正) 숙감부정(劬政不正) 지도자가 솔선하여 바르게 행하면 누가 감히 바르게 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술회하는 일꾼을 강조하고 있다.

또 권 의원은 소통을 중요시 하고 있다. 소통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고 약속할 때는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하고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대체

으로 잘되어 보건복지부와 합의가 되었다. 갈등을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대화이다. 조정위원회에서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끌고와 참여시켜 함께 대화에 나서니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던 갈등이 서서히 해소되었다.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60 여차례 회의를 가졌다. 이렇게 해서 재건축 찬성 20%에서 83%까지 끌어올렸으니 소통의 놀라운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같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각가지 갈등을 푸는 해법은 어느 한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사람이 풀어가면 반드시 길이 있었다.

광진구에는 경희소녀시대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권원장은 사비를 털어 10여년 운영하고 있는데 아동센터는 결식아동도 많지만 부부가 맞벌이하여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가정의 자녀들이 주로 이용한다. 그런데 수요는 점점 늘고 시설은 부족하다. 못 들어가는 아이들은 길거리를 헤메다 사고를 친다. 센터 아이들을 국회로 불러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런 나들이를 난생 처음 해봤다는 아이들이 여럿이다. 또 놀이

<권택기 의원 걸어온 길>

- ▶ 학력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 주요경력 : 현 제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 광진갑) / 현 한나라당 정무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 위원 / 전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 전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객원연구원
- ▶ 수상 : 2010년 NGO모니터단 선정 국감 우수의원
- ▶ 2010년 제2회 매니페스트 약속대상 국회의원부문 우수상
- ▶ 2011년 제18대국회 현정대상 우수상 수상

사직대제(社稷大祭) 봉행



국왕역 황사손 이원 총재의 영신례와 국악원의 일무 모습



좌로부터 초한관 태사 이원총재, 태직 김영중 종로구청장, 후직 권상목 고전연구원장

지난 9월18일(일요일) 정오에 서울 종로구 사직동 사직단(社稷壇)에서는 문화재청, 주최 하에 사직대제 보존회(사단법인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주관으로 전국의 유림단체 및 전국 성씨(姓氏) 문중 단체 등 국내, 외 관공과 포함 총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사직대제가 봉행되었다.

사직대제(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는 국태민안(國泰民安)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의식으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봉행한 바 있으며, 사직단의 설치와 그 제사는 고려시대에 이어 조선시대에는 태조가 도읍을 한양으로 천도(遷都)한 후 1365년(태조4년) 경복궁을 중심

으로 동쪽에 종묘(宗廟)를 서쪽에 사직단을 조영(造營), 봄, 가을 두 번의 대향사(大享祀)와 정월의 기곡제(祈穀祭) 가뭄에 가우제(祈雨祭) 등을 봉행하였다.

현 이곳 사직단은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사직공원으로 바뀌고 순종2년에(1908년) 제례의식도 폐지되었던 것을 서울특별시와 전주이씨대동종약원에서 고증(考證), 발굴(發掘), 조사(調査)하여 1988년 원형대로 복원 그 해 10월부터 종로구청 주최로 매년 사직대제를 1998년부터 개최하게 되었다.

사직제례는 예로부터 땅의 신(神)과 곡식의 신에게 드리는 국가적인 제사로 사(社),이며 땅의 신 직(稷)

은 곡식의 신을 의미하며 제왕(帝王)이 신위를 직접 모셔 제사를 올린다 하였다. 이날 제례는 초한관 태사(太社) 현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총재 이원(李源), 후토(后土) 민영복(현: 성관관 유도회 부회장), 태직(太稷) 김영중(현: 종로구청장), 후직(后稷) 권상목(權相穆) 현 풍국고전연구원 원장 등이 제관으로 분방되었다.

우리권문(權門)에서는 왕비 문중으로 사직대제 봉행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현 권경달 대동원 총재가 위촉되어 있으며 금년도 초한관에 임선된 권상목 축진(북악공파, 33세) 등이 제관으로 참례 하였다.

(권범준 본원기자)

상주청년회 하계수련대회



사진(상)은 상주청년회 하계수련회를 하고 기념촬영 했으며, 아래는 권영철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동권씨 상주청년회에서는 오늘의 우리들을 있게 해주신 훌륭한 선조님들의 고귀하신 숭조이념을 되새기고 우리 상주지역 족친간의 화목과 결속을 다지면서 상부상조하는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2011년도 하계수련대회를 바쁜 농사일 등 공사간 매우 바빴것으로 사료되나 하루쯤 짊을 내려 화목과 결속을 다질 수 있도록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8월27일 상주시 합창음 신

권윤중씨 세명대 교수 임용

권윤중씨(51. 제천, 추밀공파 38세)가 9월 1일자로 세명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권교수는 KAIST 시스템공학센터 연구원, 경일연구소장, 미화전자개발 대표를 지냈으며 현 공학박사로 연구에 정진하고 있다.



(편)

● 등정



▲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6일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집값은 아직 높은 수준이며 특히 일각에서 얘기하는 강남3구 규제완화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권오을 국회의사무총장은 1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하여 기념촬영 및 오찬을 가졌다.



▲ 권택기 국회의원은 9월 6일 오후 2시 광진구 어린이회관 무지개극장에서 '권택기 에세이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 권영세 안동시장은 19일 안동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44회 대통령금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선수와 임원 및 체육회 관계자를 격려했다.

▲ 권진봉 한국감정원장이 14일 경기수원지점에서 일감정역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과 직원의 고충을 직접 체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CEO일감정역 현장체험은 사전 시나리오 없이 최근 접수된 감정평가 의뢰물건 가운데 1개를 배정, 권 원장이 직접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僕射公派祖 秋享祭 案内

僕射公派祖 府君 秋享祭를 아래와 같이 奉行하오니 派親諸位께서는 多數參席하여 주시기 仰望하나이다.

- ▶ 日 時 : 2011년 10월 28일(금)(음 10월2일 정일) 오전 11시
- ▶ 場 所 : 安東市 西後面 敎理 松夜壇所
- ▶ 交通便 : 安東市內→豊山方面 4km 地點 안동한우 장수촌
- ▶ 連絡處 : (054)855-6989 派宗會館 (安東市 太華洞 666-62番地)
- △ 회 장 權啓東 010-5161-4271
- △ 수석부회장 權世源 010-2762-5334
- △ 총무 부장 權五翼 011-504-2083
- 隣近 派親에게도 多數參祭하도록 連絡 바랍니다.

2011년 10월 1일

安東權氏僕射公派宗會 會長 權啓東

檢校派祖 秋享祭 案内

謹啓
仲秋之際에 尊分 錦安하심을 仰祝 하옵니다. 就而 아뢰올 말씀은 우리 宗會의 年中最大 行事인 尚州恭儉 派祖 秋享祭를 아래와 같이 奉행코자 하오니 公私多忙 하시더라도 많은 참례를 희망하옵니다. 各 가정 언체나 건강들 하옵시고 만복이 充滿하시옵길 祝願하옵니다.

◇ 아 래 ◇

- 추 향 제 : 2011년 10월 9일(日) 오전 10시 (상주시 공검면 율곡리)
- 서울출발 : 2011년 10월 8일(土) 오후 2시
- 출발장소 : 지하철 3호선 양재역 7번 출구 200미터 전방 서초구민회관 앞
- ※ 추향제에 참석하실 분은 승용차 준비관게로 2011. 10. 1일까지 오운, 용모 총무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총무 권오운 010-3170-0962 총무 권용모(011-396-0903) 차량 04구 9300 르노삼성 SM 7

安東權氏檢校公派宗會 會長 權泰春